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중국 제외 국가에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으로 급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9일(수) 미국 증시에서는 장 초반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 보복관세 부과 등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하락 출발 하였으나, 장중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간 유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협상 기대감 부각된 영향으로 3대지수는 급등세로 마감 (다우 +7.87%, S&P500 +9.52%, 나스닥 +12.16%).

이 날 트럼프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보편관세 10%만 부과하고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 이에 테슬라(+22.7%), 엔비디아(+18.7%) 등 기술주 중심으로 폭등세 연출. 주식시장 외에도 장중 WTI(+5.3%), 금(+3.7%), 비트코인(+8.2%) 등 여타 자산 가격도 급등하며 상황이 급변하는 흐름 연출. 결국,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 이후 나타난 미국채 금리 급등, 증시 급락, 경기침체 우려 등에서 비롯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트럼프 뜻'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

물론,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84% 관세 부과와 이에 대한 미국의 보복성 대중 관세 125% 인상 등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잔존. 협상 타결시 중단될 예정이지만, 유럽연합(EU) 또한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25% 관세는 유지되고 향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 예고된 점도 관세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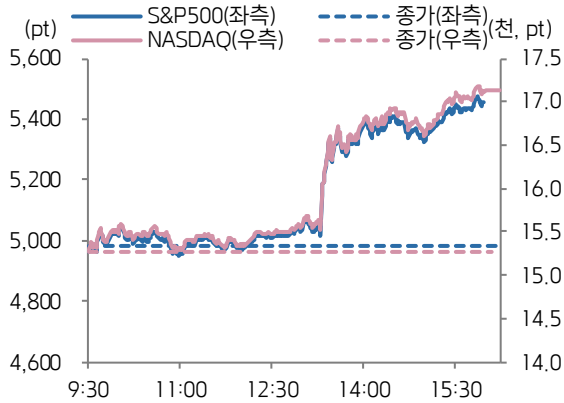
그러나, 베센트 재무 장관의 발언처럼 금번 상호관세 90일 유예 결정은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 트럼프는 현재 '높은 관세율 선(先) 부과 → 관세 유예 and 상대국과의 협상 → 관세율 조정'이라는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는 국가별 맞춤형 협상 수순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현재 트럼프는 베트남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후 일본, 인도, 한국 등의 국가와 차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 또한, 트럼프나 시진핑 모두 현재는 강경 모드로 대응하고 있지만, 둘 모두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이 과정에서 여전히 관세 노이즈는 지속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세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전일 국내 증시는 상호 관세 발효일이 도래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 우려 촉발 및 중국의 대규모 미국채 매도로 추정되는 미국채 금리 급등한 가운데 외국인 중심의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가 지속된 결과 양 지수는 동반 하락 마감 (코스피 -1.74%, 코스닥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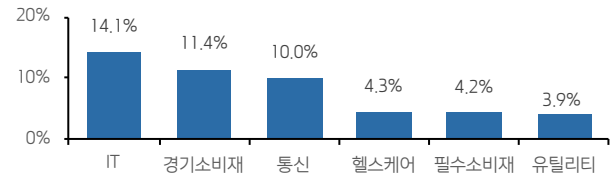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따른 미 증시 급등, 원달러 환율 (1,480원대 → 1,450원대) 급락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관세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급등 출발할 것으로 전망. 한편, 최근 상호관세발 이슈로 인한 급락으로 코스피는 12개월 후행 PBR은 0.79배까지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시 국내 증시로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진입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 이에 따라, 4월 이후 약 8조원 가량 순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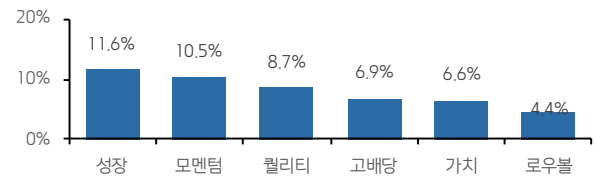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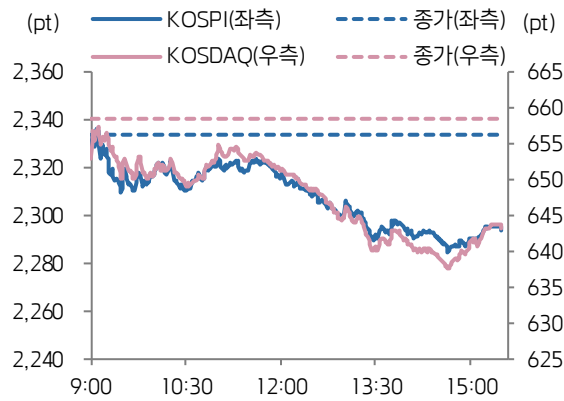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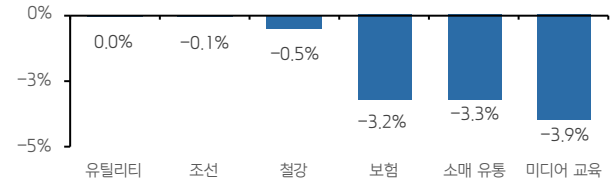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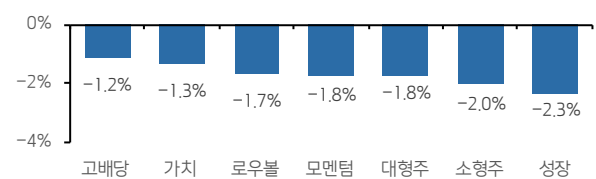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198.85	+15.33%	-20.51%	GM	45.74	+7.67%	-13.92%
마이크로소프트	390.49	+10.13%	-7.17%	일라이릴리	753.71	+3.78%	-2.2%
알파벳	158.71	+9.68%	-16.06%	월마트	89.60	+9.55%	-0.56%
메타	585.77	+14.76%	+0.13%	JP모건	234.34	+8.06%	-1.13%
아마존	191.10	+11.98%	-12.89%	엑손모빌	105.80	+4.99%	-0.77%
테슬라	272.20	+22.69%	-32.6%	세브론	146.03	+6.65%	+1.94%
엔비디아	114.33	+18.72%	-14.86%	제너럴일렉트릭	89.60	+9.5%	-0.6%
브로드컴	185.15	+18.66%	-19.9%	캐터필러	301.01	+9.88%	-16.72%
AMD	96.84	+23.82%	-19.83%	보잉	160.82	+15.37%	-9.14%
마이크론	77.87	+18.81%	-7.35%	넥스트에라	67.58	+5.4%	-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293.70	-1.74%	-4.41%	USD/KRW	1,472.00	-0.47%	-0.02%
코스피200	304.53	-1.77%	-4.18%	달러 지수	102.97	+0.02%	-5.08%
코스닥	643.39	-2.29%	-5.13%	EUR/USD	1.09	-0.08%	+5.75%
코스닥150	1,057.33	-2.72%	-6.41%	USD/CNH	7.35	-1.07%	+0.11%
S&P500	5,456.90	+9.52%	-7.22%	USD/JPY	147.76	+1.02%	-6.01%
NASDAQ	17,124.97	+12.16%	-11.32%	채권시장			
다우	40,608.45	+7.87%	-4.55%	가격	DTD(bp)	YTD(bp)	
VIX	33.62	-35.75%	+93.78%	국고채 3년	2.430	+1.8bp	-16.5bp
러셀2000	1,913.16	+8.66%	-14.21%	국고채 10년	2.725	+4.9bp	-14.6bp
필라. 반도체	4,230.45	+18.73%	-15.05%	미국 국채 2년	3.908	+18.2bp	-33.4bp
다우 운송	13,913.01	+10.1%	-12.47%	미국 국채 10년	4.332	+3.9bp	-23.8bp
상해종합	3,186.81	+1.31%	-4.92%	미국 국채 30년	4.737	-2.8bp	-4.5bp
항생 H	7,535.68	+1.41%	+3.37%	독일 국채 10년	2.591	-4bp	+22.4bp
인도 SENSEX	73,847.15	-0.51%	-5.4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4,622.14	-3.17%	-5.59%	WTI	62.35	+4.65%	-11.56%
MSCI 전세계 지수	742.96	-0.34%	-11.69%	브렌트유	65.48	+4.23%	-12.27%
MSCI DM 지수	3,254.24	-0.39%	-12.23%	금	3,079.40	+2.98%	+14.39%
MSCI EM 지수	1,002.60	+0.11%	-6.78%	은	30.42	+2.46%	+4.01%
MSCI 한국 ETF	53.28	+8.91%	+4.7%	구리	419.25	+1.17%	+4.12%
디지털화폐				BDI	1,342.00	-4.21%	+34.6%
비트코인	83,173.76	+7.94%	-11.25%	옥수수	480.50	+1.21%	+2.51%
이더리움	1,673.07	+13.01%	-50.01%	밀	542.25	+0.42%	-3.6%
				대두	1,012.50	+1.99%	-0.95%
				커피	340.55	-0.23%	+10.4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9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